

오순절 후 열일곱 번째 주일 / 세계 성찬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7<sup>TH</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10월 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5장 “큰 영화로신 주” (새 5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0 번 시편 96 편	찬양팀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출애굽기(Exodus) 15:22-27</b>	고원희 집사
찬 양 Anthem	“평 안”	찬양대
설 교 Sermon	<b>“그들이 마라에 이르고 엘림에 이르나” (They Came to Marah and They Came to Elim)</b>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231 장 “우리 다같이 무릎 꿇고서”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의찬송 Sendi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차지 않는다”며,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경고하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분주했고,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진실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11: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개역개정 **출15:26**)

“He said,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and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if you pay attention to his commands and keep all his decrees, I will not bring on you any of the diseases I brought on the Egyptians, for I am the LORD, who heals you.’” (NIV **Exodus 15:2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2 (주일)	10/3 (월)	10/4 (화)	10/5 (수)	10/6 (목)	10/7 (금)	10/8 (토)
	왕상4,5	왕상6	왕상7	왕상8	왕상9	왕상10	왕상11
본문	엡2 겔35 시85	엡3 겔36 시86	엡4 겔37 시87,88	엡5 겔38 시89	엡6 겔39 시90	빌1 겔40 시91	빌2 겔41 시92,9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0/5수 오후7:30)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단39:15)
토요 새벽기도회(10/8토 오전6:30)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96:1-13)

지난 주일(9/25) 말씀 – 한병철 목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느 11:1-2)

비록 느헤미야는 자신의 몸이 바사 제국의 안락한 수산궁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휘파람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동족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탄식을 기도로 바꾸었으며, 결국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편안한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대적자들의 비웃음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백성들의 지도자들, 2)백성들 가운데 제비 뽑힌 십분의 일의 사람들, 그리고 3)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이주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자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지만, 결국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은 다같이 성벽에 올라, 넓은 곳을 보며, 큰 기쁨으로 낙성식을 거행했던 것을 봅니다(느12:43).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며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반복해서 간구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했고, 중간에 모든 일도 기도로 감당했으며, 또한 그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를 지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숨쉬며, 소명을 붙잡고 걸어 가감을 통해, 날마다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